

# 김수철 음악인생 40년 들어보실래요

‘작은거인... 음악이야기’ 출간

인생곡 탄생 배경 등 담아

방탄소년단 등 요즘 음악 좋아해

기타로 국악을 현대화 시킬 것

컴퓨터 타자를 못 치니 열 달을 꼬박 노트에 연필로 써내려갔다. 기억을 끄집어내고 자료를 뒤지다 보니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가수 김수철(60)은 소리만 매만지던 사람이 활자와 씨름하느라 고충이 있었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환갑을 맞은 올해 40년 음악인생을 정리한 책 ‘작은 거인 김수철의 음악 이야기(까치)’를 출간했다.



최근 종로구 수송동에서 만난 김수철은 “사실 히트곡과 영화 ‘서편제’, 올림픽과 월드컵 관련 음악 등 제가 그간 만든 작품을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해 공연을 열고 싶었는데 파트너를 만나지 못했다”며 “출판사에서 제안이 와 책을 쓰다 보니 추억을 되새기고 음악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플랜을 짜고 계획대로 움직이는 성격이 못돼 그때그때 주어진 작곡에 몰두하고 매일같이 기타 연습을 하며 오늘날 열심히 살고 있다고 돌아봤다.

“제가 좀 둔해요. 과거보다 오늘이 중요해서 가수왕 시절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솔직히 40년 소회할 것도 없어요. 나이 들어 ‘예전 같지 않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매년 마지막 작품처럼 최선을 다해 음악만 만들었죠. 술 먹으면 악기 연주도 어려워 20년 전에 술·담배도 끊었고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갔네요. 하하.”

그는 인생의 3분의 2를 쏟아부은 음악의 의미를 묻자 “아직 잘 모르겠다”며 의외의 답을 내놓았다.

가수 김수철(60)은 소리만 매만지던 사람이 활자와 씨름하느라 고충이 있었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환갑을 맞은 올해 40년 음악인생을 정리한 책 ‘작은 거인 김수철의 음악 이야기(까치)’를 출간했다. 최근 종로구 수송동에서 만난 김수철은 “사실 히트곡과 영화 ‘서편제’, 올림픽과 월드컵 관련 음악 등 제가 그간 만든 작품을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해 공연을 열고 싶었는데 파트너를 만나지 못했다”며 “출판사에서 제안이 와 책을 쓰다 보니 추억을 되새기고 음악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플랜을 짜고 계획대로 움직이는 성격이 못돼 그때그때 주어진 작곡에 몰두하고 매일같이 기타 연습을 하며 오늘날 열심히 살고 있다고 돌아봤다. “제가 좀 둔해요. 과거보다 오늘이 중요해서 가수왕 시절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솔직히 40년 소회할 것도 없어요. 나이 들어 ‘예전 같지 않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매년 마지막 작품처럼 최선을 다해 음악만 만들었죠. 술 먹으면 악기 연주도 어려워 20년 전에 술·담배도 끊었고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갔네요. 하하.” 그는 인생의 3분의 2를 쏟아부은 음악의 의미를 묻자 “아직 잘 모르겠다”며 의외의 답을 내놓았다. ◇ 인생곡은 가요부터 만화영화 주제가까지...“방탄소년단·아이유 흥행해” 시간에 따라 기술한 책은 기타를 독학하며 첫 자작곡 ‘내 인형’을 만든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된다. 광운대 통신공학과에 입학한 그는

슈퍼보드의 주제가 ‘치기치기차차차’는 초등학교 5학년 음악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이미 1990년대 인도에 건너가 기타 등의 악기를 배우는 열정이 있던 그는 한참 후배들의 요즘 음악도 꿰고 있었다.

그는 “시상식 심사도 하고, ‘쇼미더머니’ 같은 프로그램도 좋아해서 요즘 후배들이 어떤 음악을 하는지 알고 있다”며 “한길로 죽가서 미국에서 훌륭한 결과를 낸 방탄소년단을 보면 기분이 좋다. 인기가 도취하지 않고 자기 음악 세계를 차곡차곡 쌓는 아이유도 칭찬하고 싶다. 또 다이나믹듀오, 비와이 등의 후배들도 좋아한다. 전반적으로 후배들의 실력이 좋아 세계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칭찬했다.

◇ 37년간 국악 연구...“우리 문화 척박해 ‘나라도 알리지’ 생각”

대중적으로는 덜 알려졌지만 김수철은 1980년부터 37년간 국악의 현대화 작업에 매달렸다. 지금껏 발표한 총 37장의 음반 중 ‘불림소리’, ‘팔만대장경’ 등 국악 음반이 25장에 달한다.

우리 소리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1980년 친구들과 함께 소형 영화 ‘탈’을 만들면서 영화 음악을 작곡한 게 계기였다. 당시 ‘탈’은 프랑스 세계청소년영화제에 출품해 본선에 진출했다.

호기심에 머물지 않은 그는 국가적인 행사 음악을 작곡한 것도 동력이 됐다. 그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전야제, 2002 한일 월드컵의 조추첨과 개막식 음악을 작곡했다.

그는 “처음부터 애국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며 “그런 음악을 만들다 보니 서양 문화의 범람으로 우리 문화가 너무 척박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문화의 균형이 안 맞으니 ‘나라도 우리 것을 알리지’고 생각했고 해가 갈수록 깊어졌다”고 돌아봤다.

서울 아시안게임 음악을 만들면서는 ‘기타 산조’란 장르를 개척했다. 그가 이름 붙인 ‘기타 산조’는 전자 기타로 우리의 가락인 산조의 형식을 빌려 작곡하고 연주한 음악을 뜻한다. 그는 “우리 소리를 현대화해 세계로 나가려면 보편타당함 음악을 작곡해야 했다”며 “서양 악기인 기타를 수단으로 우리 소리가 담긴 현대 음악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철뉴스

## 엑소·방탄소년단 ‘멜론 뮤직 어워드’ 대상



5관왕 수상... ‘올해의 앨범’상은 아이유

그들 엑소와 방탄소년단이 ‘2017 멜론 뮤직 어워드’(이하 MMA)에서 나란히 대상을 비롯해 5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2일 오후 7시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MMA’에서 엑소와 방탄소년단은 3개의 대상 중 ‘올해의 아티스트’ 상과 ‘올해의 베스트송’ 상을 각각 차지했다. 나머지 대상인 ‘올해의 앨범’ 상은 아이유가 받았다.

‘MMA’에서 2013년부터 네 번째 대상을 받은 엑소는 이날 ‘톱 10’ 상과 ‘네이션 인기상’, ‘댄스 남자 부문’ 상 등 5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엑소는 “엑소엘 여러분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며 “기록을 세우고 대상을 받았지만,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이 쌓여 10년, 20년, 30년이 된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기록은 없는 것 같다. 앞으로의 엑소 행보를 기대해달라”고 인사했다.

‘MMA’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대상을 받은 방탄소년단은 ‘톱 10’ 상과 ‘뮤지비디오상’, ‘글로벌 아티스트’ 상 등 5관왕을 기록했다.

멤버 RM은 히트곡 ‘봄날’로 ‘올해의 베스트송’ 상을 받은 직후 “누구보다 아이(팬클럽명)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어제는 ‘앨범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받았는데 오늘은 노래상을 받아 놀랐다.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많은 분을 위로하려 쓴 노래가 많은 분의 사랑을 받아 영광이다”고 인사했다.

앨범 ‘팔레트’로 ‘올해의 앨범’ 상을 받은 아이유는 “올해는 앨범 한 장의 가치를 어느 해보다 느꼈다”며 “음원으로서의 가치보다 음악으로서의 가치를 생각하는 가수, 작사가, 프로듀서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과 함께 ‘톱 10’ 상과 ‘송라이터상’도 받아 3관왕에 올랐다.

또 ‘괴물 신인’ 워너원도 ‘톱 10’ 상과 신인상, 카카오톡 스타상 등 3개의 트로피를 가져갔으며 대세 걸그룹 트와이스는 ‘톱 10’ 상과 ‘댄스 여자 부문’ 상 등 2개의 트로피를 차지했다.

올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10팀을 꼽는 ‘톱 10’ 상에는 엑소와 방탄소년단, 아이유, 워너원, 트와이스 외에도 빅뱅, 레드벨벳, 워너, 불발간사춘기, 헤이즈가 호명됐다. 장르별로는 다이나믹듀오와 첸이 ‘랩/힙합 부문’, 정은지가 ‘포크/블루스 부문’, 수란이 ‘R&B/솔 부문’, 홍진영과 김영철이 ‘트로트 부문’, 멜로망스가 ‘인디 부문’ 상을 받았다.

또 시상식에서 신곡 ‘립&힙’(LIP&HIP)을 처음 공개한 현아는 ‘MBC뮤직 스타’ 상을, 박효신은 ‘올해의 스테이지’ 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50 세상이기 48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2TV 생생정보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영화가 좋다(재)	50 투깝스(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5 UHD 한식	50 마녀의 법정(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열린공간 토크 Talk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1	00 넷워킹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빛고을 행복이카데미	50 VJ 특공대	10 문화사색	55 닥터 365
2	50 콘서트 필(재)	5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10 헬로키키 아하! 동물탐대 2(재) 45 드림 주니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30 공감다큐. 사람(재) 50 팔도발상 스페셜(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15 사이닝스타 45 꾸러기 식사교실	
4	00 4시 뉴스집중		15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재) 35 UHD 한식(재)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상앨범 산(재) 30 실력하는 남자들 스페셜	00 MBC 이브닝 뉴스 30 전생애 뎀수들(재)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발상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서남해안 관광프로젝트 -신해양시대 바다가 미래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애 뎀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재보자들	35 투깝스(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40 가요무대			
10	40 KBS 뉴스라인	00 저글러스	00 투깝스	00 의문의 일승
11	10 월요기획	10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10 아시아의 향	10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 1~2부
12	00 이웃집 살스(재) 50 생활의 발견	50 사랑의 가족(재)	10 천년의 전라도 25 겁 없는 녀석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 시장가행-칼보디아 어시싱)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허준선이 과학쇼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월드 08:00 덩동덩 유치원 1~2 08:30 플라워링 하트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몬카트 09:15 소피 루비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대파 새우탕과 아몬드 새우볶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과학 다큐 비온드(재) 13:40 엄마를 찾지마(재) 14:30 레이디버그 15:00 우주탐험가 젯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5:30 오드북, 이상한 아이들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6:00 엄마 까투리 16:15 두다다큐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덩동덩 유치원 1~2(재) 17:15 로보카 폴리 17:30 강철소년대 파이어로보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로보 발명왕 러스티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20:40 다큐 오늘 (오리너구리, 며느리발톱의 비밀) 20:50 세계테마기행 (하쿠나 마타타 케냐 1부 마법의 땅) 21:30 한국기행 21:50 EBS 다큐프라임 (중앙아시아, 살아남은 야생의 기록) 22:45 엄마를 찾지마 23:35 가칠남녀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24:30 세계의 범죄 (더블 가족 이야기 4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4일(음 10월 17일 乙丑)

子	48년생 치밀한 대저 없이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60년생 육식을 가려내지 못하고 함께하는 고동은 상당하다. 72년생 활이 꺾이고 화살이 다 떨어진 이치이다. 84년생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규모가 달라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4, 29	午	42년생 정면 돌파가 최상의 방책이 아니라, 54년생 직접 나서는 것이 낫다. 66년생 성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다. 78년생 균형 감각과 체계적인 준비가 절실하다. 90년생 변함없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행운의 숫자 : 32, 91
丑	49년생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조처하라. 61년생 형식적인 것은 무의미하니 실질적인 내용이 절실하다. 73년생 수순수위와 역할에 상우함이 있어야겠다. 85년생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조명을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3, 04	未	43년생 기대치와 떨어져 있어서 결과에 허무할 수도 있다. 55년생 다음 코스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67년생 집중적으로 추진하자. 79년생 단일 대상을 찾는 것이 능률적이다. 91년생 계획에 왔던 바를 실행하기에 적합하다. 행운의 숫자 : 22, 56
寅	50년생 인간은 겪어 봐야 알고 물은 건너봐야 아니니라. 62년생 가급적이면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 낫다. 74년생 깊이 있는 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다. 86년생 의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해야 함을 분명히 알라. 행운의 숫자 : 89, 07	申	44년생 본격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킨다. 56년생 자신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정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라. 68년생 최소화할 수 있는 조처함이 필요하다. 80년생 희망의 해가 떠오르고 있다. 행운의 숫자 : 65, 47
卯	51년생 이익의 급격한 증가가 보이는 시기이니 기만하게 대처할 일이다. 63년생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낫다. 75년생 천신만고 끝에 난공불락에 점령하는 이치다. 87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바에니 빨리 청산 하자. 행운의 숫자 : 25, 80	酉	45년생 처음이어서 낯설고 어려워져 불편해 하는 판세이다. 57년생 흐리터분한 데가 없이 맑고 명쾌해야만 한다. 69년생 지난날 공들여 왔던 분야에 이익이 따르고 효율성이 높아진다. 81년생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다. 행운의 숫자 : 28, 79
辰	52년생 어차구니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매사에 방심하지 말지마. 64년생 아는 길도 물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76년생 완벽하지 않다면 불리하다. 88년생 신속하게 처리하면 상당한 재물을 얻을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52, 08	戌	46년생 초기 계획과는 약간 다르게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 58년생 우직할 정도로 진득한 덕성이 필요하다. 70년생 쓸 일이 구르는 돌은 이기가 길 틀이 없느니라. 82년생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으니 상당한 노력을 요한다. 행운의 숫자 : 21, 01
巳	53년생 분란을 헤아리는 것보다 질을 따져 봄이 상책이로다. 65년생 중요함을 놓칠 수도 있는 운수이다. 77년생 총본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89년생 허례나 명분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으니 실질을 우선시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63, 23	亥	47년생 아무리 눈앞에 아른거리더라도 과감하게 마음을 비우면 그만이다. 59년생 본디부터 없었던 것이니 갈으니 집착할 필요 없다. 71년생 뒤따르는 이가 보이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83년생 문젯거리로 비화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7, 4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